

# 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3월 23일 · 제349호  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## Contents

### 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IRISL, 이란 제재 조치 해제로 북유럽 항로 서비스 재개
2. CEVA, 호주 서부지역에 신규 물류시설 개장
3. CMHI, 해외 10개 항만 투자 계획 발표
4. Maersk, 드론으로 선용품 운반 시험중

### | 물류시장동향 |

1. XPO 물류, 아이슬란드 콜드체인물류 서비스 제공
2. 우크라이나 니카-테라항의 1-2월 처리 물동량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





## 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### IRISL, 이란 제재 조치 해제로 북유럽 항로 서비스 재개

- 이란 국영해운사인 IRISL이 2,478TEU급 선박 2척을 투입, 북유럽 항로서비스인 ECL (European Container Line)서비스를 재개했다고 해운전문지 American Shipper가 보도함
  - ECL서비스는 북유럽과 페르시아만을 운항하는 서비스로 이란 제재로 2010년 중반 종료 된 바 있음
  - 이 서비스의 주요 노선은 함부르크에서 2,478TEU급 Azargoun호가 3월 17일 운항을 시작하여 함부르크(Hamburg), 안트워프(Antwerp), 타라고나(Tarragona), 바르셀로나(Barcelona), 제노바(Genoa), 암발리(Ambarli), 포트사이드(Port Said), 반다르 압바스(Bandar Abbas)를 기항함
  - 다른 동급 선박인 Artenos호는 자회사인 Hafiz Barya Shipping(HDS) Lines에 의해 운영됨
- 미국은 IRISL과 자회사에 대해 이란에 불법 무기의 수송을 도왔다는 이유로 2008 년 IRISL에 제재 조치를 부과한 바 있음
  - 미 재무부(Department of the Treasury)는 IRISL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HDS 라인을 포함하여 바지회사(front company)를 설립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했다
  - HDS는 2009년 설립되어 IRISL가 운항하는 거의 동일한 항로를 운항하는 회사였는데, 그 결과 미 재무부는 2010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, HDS와 바지회사로 간주되는 기타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했음
  - 이후 유엔과 EU도 IRISL과 HDS에 대해 2010년 여름부터 이러한 제재에 동참했음
- 그러나 2015년 이란과 세계 주요 6개국(중국, 프랑스, 러시아, 영국, 미국 그리고 독일) 사이에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핵협상이 체결되어 2016년 1월 발효됨에 따라 이란 제재를 해제했음
  - 제재 해제의 결과,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MSC와 CMA CGM 등은 최근 이란에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재개 시작했음
  - CMA CGM는 2015년 12월 31일 반다르 아바스항을 기항하여 아시아, 중동 및 서남아를 연계하는 팔콘(Falcon)서비스를, MSC는 2015년 하반기 미다스(Midas)서비스를 통해 중동, 서남아,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음
  - 반다르 압바스항에 기항하여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Evergreen Line, Hyundai, OOCL, Hanjin, "K" Line, KMTC, X-Press, UASC, CSCL, ANL, COSCO, U.S. Lines, Yang Ming, Wan Hai, PIL, Emirates, RCL, Messina, HDS Lines와 IRISL임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6.3.18

김태일 부연구위원  
051-797-4613, ktzorro@kmi.re.kr



## CEVA, 호주 서부지역에 신규 물류시설 개장

- 글로벌 물류기업인 CEVA는 호주 물류 시장 확장을 위해 호주 서부지역에 2개의 신규 물류시설을 개장했음
  - 신규 물류시설은 6만㎡ 규모의 종합 물류센터 1개, 4만㎡ 규모의 환적 및 운송 차량 정비/관리 센터 1개로 각각 Hazelmer, High Wycombe 지역에 위치함
- 신규 시설들은 Perth 항공화물 허브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, Roe, Tonkin, Great Eastern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음
  - 이 외에도 호주 서부 지역의 해상, 항공 등 주요 물류 인프라 시설과 인접해 있음
- 신규 시설에는 자동차, 에너지, 광업,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음
- CEVA 오세아니아의 Clayton Noble 상무이사는 "CEVA는 호주 서부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, 이번 시설 개장은 이 지역에서 또 한번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언급함
  - 또한 "이번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보유 자원 공유, 최첨단 물류서비스 기술 활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"이라고 덧붙임
- Hazelmer 지역의 신규 시설은 4,600여개의 이동식 랙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물류 기술을 통해 24시간 효율적인 상하역이 가능함
- High Wycombe 지역의 신규 시설은 트럭의 자동 높이 감지 시스템, 자동 세차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, 연간 25,0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환적 작업장, 차량 정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
- 이 외에도 올해 초 CEVA는 호주 지역에서 기존의 해상, 항공 사업과 연계한 신규 육상 운송 사업을 개시했음

자료 : [www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](http://www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), 2016.2.29.

손보라 연구원  
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



## CMHI, 해외 10개 항만 투자 계획 발표

- 국제 선박 정보업체인 영국 IHS페어플레이(IHS Fairplay)에 따르면 홍콩 소재 해운항만 물류 그룹인 차이나머천트홀딩스(CMHI, 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)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 러시아, 서아프리카, 동남아시아 등 해외 10개 항만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
- CMHI의 Bai Jingtao 전무이사는 “CMHI의 해외 10개 항만 투자 계획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함께 전 세계 주요 거점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”고 하며 “CMHI는 1대1로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파트너들을 찾고 있다”고 덧붙임
-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(Maritime Silk Road) 전략은 인도양(Indian Ocean)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
  -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관계자는 “중국은 이를 위해 전 세계 적절한 지역의 적절한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,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통합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”이라고 언급함
- 최근 중국 기업들은 중국 주식시장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합병과 같은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 중 Cosco와 China Shipping 간의 합병은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임
  - COSCO와 China Shipping의 합병회사는 COSCOCS(China Cosco Shipping Corporation)라는 이름으로 올해 2월 18일 상하이에서 공식출범했으며,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음
- Bloomberg Business에 따르면, 상하이증권거래소(Shanghai Stock Exchange)의 상하이증권지수(SSE Indices)는 2016년 3월 11일 기준 2804포인트를 기록했음
  - 지난해 최고점인 2015년 6월 12일의 5178.19포인트에 비해 하락했으나, 2012-14년의 2200대 지수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
- 중국 주식시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규모는 약 11조 달러에 달하고 있음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6.3.11.

손보라 연구원  
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



## Maersk, 드론으로 선용품 운반 시험중

- 머스크탱커가 드론 생산업체 Xamen Tech와 협력하여 과자상자를 탱커선에 운반하는데 성공하자, 머스크 그룹 차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선용품 운반을 시험 하고 있음
  - 시험에 성공하면, 선박검사 및 해적경보에도 드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  - 사용된 드론은 프로펠러가 8개로, 초당 최대 16m의 속도로 최대 20kg나 운반 가능함
- 바지선을 이용하여 긴급 부품 · 우편 등 선용품을 운반하는 기존방식에 비해 드론을 이용할 경우 선박당 \$3,000 ~ 9,000\$ 절감이 가능하다 추정함
  - 부두에 정박하기 힘든 대형 화물선들은 바지선을 비롯한 소형 선박으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 받아 왔음

드론 운반 시험 사진



자료 : maersk.com

- 유럽에서는 항만의 오염 예방 감시, 부산에서는 불법 정박 선박에 대한 단속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음
  - 드론을 활용할 경우,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과 드론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법률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

자료 : Schednet.com, 2016.3.22.

김주혜 연구원  
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



## 물류시장동향

### XPO 물류, 아이슬란드 콜드체인물류 서비스 제공

- XPO 물류는 아이슬란드에서 향후 5년간 콜드체인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
  - XPO 물류는 아이슬란드 내에서 온도관리가 필요한 냉동식품 등의 소비자에 대해 창고저장 · 보관 및 운송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됨
  - 또한 아이슬란드의 Warrington, Enfield, Livingston, Swindon 지역에 총 4개의 유통센터를 설립함으로써 1,9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, 콜드체인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의 공급망 솔루션도 개발함
- 이번 사업 확장은 콜드체인물류와 관련, XPO 물류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임
  - XPO 물류는 아이슬란드 내 콜드체인 유통망 구축과 더불어 제품수령 및 저장 · 보관, 아이슬란드 전국 매장으로의 운송 등 전반적인 콜드체인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

자료 : <http://contractlogistics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>, 2016.3.16.

김은미 연구원  
051-797-4778, useal004@kmi.re.kr

### 우크라이나 니카-테라항의 1-2월 처리 물동량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

- 니카-테라(Nika-Tera)항의 2016년 1-2월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49% 감소한 35.5만 톤을 기록함
  - 처리 물동량 중 곡물 49.3%(17.5만 톤), 화학비료 27%(9.6만 톤), 그 외 벌크화물이 23.7%(8.4만 톤)를 차지했음
  - 또한 수출입 물동량을 비교해보면, 수출은 전년대비 38.3% 감소한 28.9만 톤이었고, 수입은 49.8% 감소한 1.8만 톤을 기록함
- 이와 같은 물동량 감소는 곡물 산업에 대한 특별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임
  - 특별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로 인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운송되는 곡물 물동량과 동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던 석탄 물동량이 눈에 띄게 감소함

자료 : <http://portnews.ru/news/216409/>, 2016.03.18

이하림 연구원  
051-797-4758, harimy@kmi.re.kr